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7월 26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

<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>

시편 23:4 / 새찬송가 570(통일 453)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

1.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‘반드시 죽으리라’는 말씀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

아담과 하와는 ‘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’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(창2:17),(창3:3).

죽는다는 건 단순히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을 넘어 지옥의 삶 즉 죄책감, 질병, 저주의 문제, 환경의 문제, 인간성 상실로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.

참된 신앙생활은 이런 죽음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악으로 일어나는 온갖 악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.

2. 이 죽음이란 것은 소유의 위기도 아니고 지식의 위기도 아니며 바로 인간 존재의 위기입니다

먼저 죽음이란 인간 존재의 위기, 즉 사람으로 있게 하지 못하도록 위기를 가져옵니다. 이 위기는 뭔가 많이 갖거나(소유) 뭔가 많이 알아서(지식) 해결할 수 없습니다.

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많이 가져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뭔가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가진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

또 사람은 뭔가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에 뭔가 알게 됩니다.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

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있게 되고 사는 것(존재)은 뭔가 많이 갖고 있는 것(소유)보다 또 많이 아는 것(지식) 보다 더 높습니다.

3. 인간 존재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보다 더 앞서는 개념이 들어와야 합니다

소유나 지식보다 높은 인간의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존재보다 더 높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결국 관계는 존재나 소유보다 높습니다.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것입니다.

애시당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.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, 또 나의 먹고 사는 문제, 나의 지혜등을 해결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.

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과 죽음의 위기에 빠져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태에 처했으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(시23:4).

다윗은 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죄를 지었을 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(시51:4). 선지자 나단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(삼하12:9). 이처럼 죄로 인한 존재의 위기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됩니다. 질병이나 저주, 환경의 문제로 인한 존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(사53:5),(약5:17,18).

우리도 존재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!

< 적용 & 실천 >

문제와 질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낙심하지 마십시오.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.